

칠심역

최근 수정 시각: 2025-09-24 14:33:02

분류: 창전구(효빈)의 철도역 | 1989년 개업한 철도역 | 효빈 도시철도 2호선 | 나무위키 철도 프로젝트

- 개요
- 역 정보
- 역 주변 정보
 - 출구 정보
 - 일평균 이용객
 - 승강장
 - 연계 교통
 - 기타

1. 개요

효빈 도시철도 2호선 214번, 효빈광역시
창전구 칠심동 616 소재.

2. 역 정보

3. 역 주변 정보

3.1. 출구 정보

칠심역	
(2)	2 호선
외선순환 유류 ← 1.02 km	내선순환 시로 1.54 km →
역명 표기	
2 호선	칠심 chilsim 七心/七心/チルシム
주소	
효빈광역시 창전구 칠심동 616	
관리역	
중수관리역	
운영 기관	
2 호선	효빈교통공사
개업일	
2 호선	1989년 2월 3일
역사 구조	
지하 3 층	
승강장 구조	
복선 섬식	

칠심역 출구 정보

1	칠심베르디움아파트
2	창전소방서
3	오양초
4	칠심 3 동행정복지센터

4. 일평균 이용객

연도	②	비고
2020년	21,039 명	
2021년	20,997 명	
2022년	22,000 명	
2023년	23,278 명	
2024년	23,232 명	

5. 승강장



6. 연계 교통

구분	정류소명	노선 번호
순방향	칠심역	7, 16, 17, 59, 141, 154, 261, 271, 472, 491, 582, 591, 592, 612, 632, 672, 771, 793, 8888
역방향	칠심역(건너편)	07-1, 61, 71, 95, 411, 514, 621, 721, 742, 941, 852, 951, 952, 612, 632, 672, 771, 793, 8888R

•

7. 기타

7.1. 역명과 관련된 여담: 히로마치 나나미 성지순례지 '七心'

창전구 칠심동에 위치한 이 역은 2020년대 들어 일본의 미디어 믹스 프로젝트 BanG Dream!의 밴드 Morfonica의 멤버 히로마치 나나미(広町七深) 팬들에게 성지로 떠올랐다.

- 연결 고리:** 역명인 **'칠심(七心)'**의 앞글자 **'칠(七)'**이 나나미의 이름(七深)과 일치하며, 나나미가 작품에서 타인의 마음(心)을 신경 쓰거나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평범해지려 노력하는 캐릭터성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나나미의 마음(七心)'**으로 불리게 되었다.
- 팬들은 이 역에서 나나미의 말버릇인 **"평범(普通 – 후츠)"**하고 싶어**를 테마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인증샷을 찍고 사라지는 '평범한 성지순례' 문화를 즐기고 있다.

7.2. 2023년 칠심역 상해 미수 및 참교육 사건

2023년, 고립주의자 A씨가 보통역 사건에 이어 칠심역에서 성지순례를 하던 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 오히려 팬들에게 물리적으로 제압당해(참교육)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다.

- 사건 개요:** A씨는 역사 내에서 나나미 굿즈(베이스 기타 가방, 괴담 책 등)를 소지한 팬들에게 다가가 **"숫자 7은 행정 구역명일 뿐이다! 오타쿠들은 꺼져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한 팬의 베이스 기타 케이스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시도했다.
- 숨겨진 실력자들의 반격:** 그러나 A씨가 간과한 점은 나나미의 팬들이 나나미처럼 **'평범함을 연기하는 숨겨진 실력자(능력자)'**였다는 것이다. A씨가 폭력을 행사하려던 순간, 주변에 있던 팬들은 순식간에 A씨를 포위하여 제압했다. 특히 공격을 받은 베이스 기타 소지자는 A씨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뒤, **"나나미 짱은 평범함을 원하지만, 폭력 앞에서는 평범할 수 없죠."**라며 유도 기술인 업어치기로 A씨를 바닥에 끌아버렸다. A씨는 자신이 '약해 보이는 오타쿠'라고 무시했던 시민들에게 대차게 당한 뒤, 출동한 역무원과 경찰에게 인계되었다.

- **성우 니시오 유카의 반응:** 이 사건은 일본까지 전해져 히로마치 나나미의 성우 니시오 유카가 본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 'Omochi Mountain' 라이브 방송 도중 언급하며 화제가 되었다.

니시오 유카: "에? 효빈시의 **'칠심(七心)역'**에서 나나미 팬들을 때리려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흐음... **'7'**이라는 숫자가 싫어서?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거 전혀 '평범(Normal)'하지 않네요~ 나나미라면 **'아, 저 사람은 평범해지는 법을 모르는구나, 불쌍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역시 나나미의 팬들은 숨겨진 능력자들이라니까요. (웃음)"

- **부시로드의 공식 협력:** 뱅드림 IP 사인 부시로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효빈교통공사와 협력하여, 칠심역에서 **'제 1 회 칠심역 보통왕(普通王) 찾기 대전'**을 개최했다. 나나미의 캐릭터성인 '평범하게 섞이기'를 테마로 역내에 숨겨진 나나미 패널을 찾거나 가장 평범하게 역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경품을 주는 이 행사는, A 씨의 혐오 난동을 **공식적인 문화 축제**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 **효빈대 에브리타임 반응:** 사건 직후 효빈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칠심역 A 씨, 나나미 팬한테 업어치기 당함 ㅋㅋㅋ"**라는 글이 올라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나나미 팬들은 **'재능을 숨긴 평범함'**이 컨셉인데 그것도 모르고 덤비다 털렸다", "A 씨는 혐오를 하려다 효빈시를 뱅드림의 성지로 만들어버렸다", **"업어치기 당한 시점에서 A 씨의 피지컬은 '평범 이하' 인증"**이라며 조롱했다.
- **A 씨의 짜질한 반박:** 물리적 패배와 성우의 조롱, 공식 이벤트 개최로 멘탈이 무너진 A 씨는 에브리타임 댓글로 **"나는 방심했을 뿐이다! 그 녀석들이 평범한 척하면서 흉기(악기)를 숨기고 있었던 게 비겁한 거다! 부시로드가 개입하다니 이건 외국 자본의 침공이다!"**라는 짜질한 변명을 남겼으나, 학생들에게 "**베이스는 흉기가 아니라 악기다**", **"본인이 먼저 찼으면서 말이 많다"**며 추가로 팩트폭행을 당했다.